

한국적 이미지의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I)*

- 오방색과 태극문을 중심으로 -

최 경 희** · 김 민 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A Study for Developing the Competitive Swimming Suit Design with Korean Traditional Image (I)*

- Focused on the 5 traditional colors and Taeguk motive -

Kyung-Hee Choi** · Min-Ja Kim***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l Univ**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Seoul Nat'l Univ***

(2002. 8. 22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get some pieces of prior information to eventually develop competitive swimming suit designs with Korean traditional images. The study has been accomplished in following steps. First, as theoretical research, the history of swimming suit design and the requirements in designing competitive swimming suits were studied. Second, as practical research, at first, the trend of the competitive swimming suit designs in the national swimming suit market was examined. And then, the questionnaire surveys of both professional and amateur swimmers about their design preferences with purchasing and fabric-related tendencies were conducted for understanding professionals' characters more exactly. This data were analyzed through cross-analysis and multi-response analysis and χ^2 wa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thletes' preferential design tendency for the swimming suit designs were examined in the aspects of style, color, pattern, logo, and accessory. In style, female athletes preferred an athletic one-piece style and male ones preferred a brief style. In color, neutral, mostly black was preferred most and cold color group like dark blue and navy blue next, regardless of sex. In addition, they preferred similar color coordination. In pattern, though solid fabrics were mostly preferred in both sexes, especially Taeguk motive were considered the most appropriate pattern to show Korean image. Besides, logo was considered importantly, and swimming caps and goggles of accessories were generally used.

*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재단에 의해 연구지원 되었음.

Second, athletes' swimming suit purchasing tendency was as a following. the number of swimming suits possessed was more than 4 pieces, the durable period was less than 3 months, and the most important point considered in purchasing was an easy fitting for men and a design with an easy fitting for women. And most of swimming athletes preferred foreign products than domestic ones, which was attributed to excellent quality, easy fitting, and good design, and so on.

Third, in fabric-related tendency, good touch, easy fitting, and opaqueness were considered importantly, and durability to chlorine, elasticity, color fastness, easy draining, lightness, and so on were demanded forward.

Key Words: Competitive swimming suit(경기용 수영복), Preferential design tendency(선호디자인 경향), Purchasing tendency(구매 경향), Fabric-related tendency(소재관련 경향), Korean image(한국적 이미지), Taeguk motif(태극문)

I. 서론

19C 산업화 시대 이후부터 레저활동의 중심영역으로 자리잡았던 스포츠는, 20C 정보화 시대 이후 각종 스포츠 제전과 스포츠 스타들의 부각, 미디어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의 발달 등이 가세하면서 이제 스포츠는 그 인구의 광범위한 확산 뿐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생활의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고착되어가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스포츠 종목의 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수영은 가장 많은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며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다양한 수중활동으로 연결되어 그 오락적인 가치도 매우 커서 사회 체육의 한 종목으로서도 인정받고 있다.

수영복은 18C 말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지금까지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변천을 겪어왔으며, 근래에는 수영복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에 따라 수영복만의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수영복은 수영선수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레저웨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므로 기능성과 함께 심미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대중매체의 발달로 '보는 스포츠'로서의 수영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선수들이 착용하는 경기용 수영복에도 심미성과 더불어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수영복 업계현황 및 소비실태를 살펴보면, 해외 수입브랜드 및 라이선스 브랜드들이 수영복 시장을 거의 선점하고 있으며, 부족한 기술력으로 기능성 소재의 사용에 있어서도 대다수 업체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소비자의 의식수준 향상과 욕구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수영복 디자인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88 서울 올림픽과 2002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널리 알릴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확충과 국내수영복 업계의 현실을 타개하며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영복 디자인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수영복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적고찰에 있어서 수영복의 변천과정과 노출에 관한 안영주(1983)의 연구가 있고,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수영복 구매행동에 관한 박근화(1997)와 제품평가에 관한 이영아(1998)의 연구가 있으며, 디자인에 있어서는 체형에 따른 수영복 디자인에 관한 김유식(1985)의 연구, 문양에 관한 조미진(1999)과 심강희(1991)의 연구가 있고, 특히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로는 유영선(1984)과 장진희(1985)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영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여성용 수영복에 한하였으며 색채 및 문양에 관한 연구도 지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특히 한국적 이미지가 적

용된 수영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전통 조각보를 모티브로 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업계의 시장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및 국가상징의 시각화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대 내외에 알릴 수 있는 한국적 이미지의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 개발에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한 이론적 연구로는 수영복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경기용 수영복의 특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실증적 연구로는 첫째 국내 수영복 업계의 최근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 경향을 살펴보고, 둘째 국내 수영선수 및 일반인들의 수영복 선호디자인 경향, 착용 및 구매실태, 소재 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별 및 선수/일반인 별 비교를 통해 일반 수영복과 차별화 된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을 위한 원천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고는 디자인 개발의 전 단계로써 수영복 전반에 관한 문헌조사와 선호도 조사까지만 한하였으며, 색채와 문양을 중심으로 한 한국적 이미지의 세부적인 연구와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른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 개발은 후속연구에서 제시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수영복의 변천과정

1) 수영복의 시대적 변천 <표 1>

수영의 역사는 고대 이집트, 인도, 그리스, 아시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시대 이전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BC 350년 경 그리스에서는 여성들이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했다는 수영복 사용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있으며, AD 약 200년경에 발견된 시실리의 피아자 아메리나(Sisily's piazza armerina) 모자이크 벽화에는 이 시기에 사용된 스트로피움(Stropium)이라는 수영복이 묘사되어 있다<그림 1>. 로마시대에도 수영과 목욕을 즐겼으나 로마제국의 몰락 후 쇠퇴하였

고, 수영은 그 후 18세기가 되어서야 여러 질병 치료의 수단으로 행해졌는데 이 시기의 수영복은 중후한 실크나 울로 만들어져서 상류층에 의해서만 입혀졌다.¹⁾



<그림 1> 시실리의 피아자 아메리나 모자이크 벽화의 스트로피움(AD 34C)
<20,000 years of Fashion>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수영은 비로소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남녀 수영복은 각기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의 지표가 된다. 초기의 여자 수영복은 길이가 길고 헐렁한 나이트 가운형태의 긴 원피스 스타일에 안에 블루머를 입었는데, 이는 1860년 헤르만 헨드리히의 석판화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스타일은 1870년 초까지 지속되다가 1870년 말부터는 바지길이가 점차 짧아져 니커보커 형이 되었다. 1880년대의 수영복은 오버스커트의 기장이 짧아져 튜닉형 오버 블라우스 형태가 되었고 프릴과 레이스 트리밍이 조화를 이루었으며, 소매는 거의 사라지고 니커보커형 바지에 보넷이나 캡형의 수영모를 썼다<그림 2>. 1890년대의 수영복은 네크라인이 보다 깊게 파인 슬리브리스 바지 원피스 수영복에 프릴장식과 새쉬 벨트로 장식한 형태로, 이 때부터 서서히 원피스 수영복의 기본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따라서, 1900년대 이전의 초기 수영복은 주로 면직물로 된 평상복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이러한 수영복은 1920년대 초까지 계속해서 나타난다.²⁾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수영이 여성들 사이에서



<그림 2> 수영복(bathing dress) 광고(1880-89)
<20,000 years of Fashion>

인기를 끌게 되면서 수영복이 패션으로 받아들여졌고 디자인도 축소되었다. 1910년대의 수영복은 신체 노출이 거의 없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 스커트, 블루머, 슬리브리스 수영복과 턱에 끈을 묶는 형태의 수영모에, 주로 무채색에 실크소재가 사용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수영복이 현대적 면모를 갖추면서 1920년대의 수영복은 짧은 바지로 된 원피스 스타일, 니트직물의 끈 없는 원피스형 수영복인 마이요(maillot)<그림 6>, 그리고 쇼츠와 긴 탑으로 된 심플한 투피스 수영복 등 점차 실용화된다<그림 3>. 또한 종 모양의 수영모와 함께 밝은 색상의 수영복이 많아지고 가벼운 저어지가 사용되었다.³⁾ 1930년대에는 경제공황과 제 2차 세계대전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기로 수영복 디자인도 많



<그림 3> 1920년대의 남녀수영복
<Changing Styles in Fashion Who, What, Why>

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오버스커트는 점차 사라지고 암홀과 테폴때는 더욱 커지면서 노출이 심해지다가 처음으로 등이 노출된 홀터 넥 스타일이 등장하였다<그림 4>.⁴⁾ 소재는 니트, 테리직, 울과 같은 면 등으로 다양해진다. 1940년대에는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으로 인해 수영복은 면, 마 등의 뻣뻣한 소재와 와이어나 거들 등의 사용으로 다소 불편해졌으나, 전후에는 훨씬 단순해진 밝은 색상의 프린트 수영복이 증가하였으며 레이온과 저어지류의 소재가 사용되었다. 특히 중반에는 브라 탑과 팬츠로 구성된 진정한 비키니가 프랑스와 미국해변에서 선풍을 일으키게 된다<그림 5>. 1950년대에는 원피스 수영복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비구조적이며 주름이 많이 잡힌 풍성한 수영복이 유행하였고<그림 6>, 중반 이후에는 비키니 수영복이 전



<그림 4> 홀터넥 수영복(1934)
<Swimwear in V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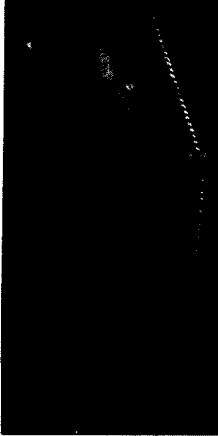
<그림 5> 1940년대의 비키니(1943)
<Splash: A History of Swimwear>

<표 1> 수영복의 시대적 변천

시기	일반 수영복			경기용 수영복	
	여자 수영복	남자 수영복	우리나라 수영복		
BC 350년	고대 그리스에서 최초의 여자 수영복, 스트로피움 등장				
18C	중후한 울이나 실크로 평상복과 유사				
19C	수영의 대중화와 남녀 수영복의 분화 시작				
	평상복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초 중반에는 긴소매가 달린 원피스 스타일과 블루머를 착용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짧은 소매의 튜닉형과 니커보커즈를 착용하고 말기에 바지 원피스형 수영복이 등장.	초 중반에는 평상복을 입거나 나체로 수영하다가 후반부터 반바지형, 삼각, 원피스 및 투피스형 수영복 등 다양화		얼굴과 팔을 제외한 인체모두를 덮는 형태, 울	
20C	191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 슬리브리스 수영복이 등장. 무채색 계열의 실크 소재	슬리브리스에 짧은 길이의 기능적 형태		
	1920년대	마이요와 쇼츠와 탑으로 된 투피스 수영복, 밝은 색상과 무늬 등장, 저어지류	셔츠와 트렁크가 분리된 투피스형이 원피스와 함께 유행	암홀과 넥라인이 더욱 깊게 파임. 면소재의 끈색 원피스	
	1930년대	오버스커트가 사라지고 타이트하고 노출이 심해졌으며, 홀터넥 스타일, 비키니 스타일, 마이요가 유행, 니트, 테리직	끈 달린 탑과 짧은 바지, 중반에는 톱리스 수영복도 등장. 나일론의 출현으로 수영복의 형태 축소		인체선을 고려한 유선형 재단의 전문 경기용 수영복이 소개됨. 실크, 면
	1940년대	뻣뻣한 소재에 와이어나 거들의 사용으로 불편하다가 전후 비키니의 선풍적 유행, 레이온, 저어지류			남자 수영복은 셔츠 없이 트렁크만 착용
	1950년대	비구조적이며 주름잡힌 수영복 등 다양한 형태, 노출의 심화, 비키니의 세계적 채택, 라이크라 발명, 나일론 유행			최초의 나일론 경기용 수영복 등장. 1960년대에 본격화
	1960년대	쇼츠/반두형 비키니와 톱리스 수영복 등장, 나일론, 라이크라 외에도 소재의 다양화	5~6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몸에 밀착된 수영복이 나타남.	수영복의 본격적 확산.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신축성 없고 노출은 최소화.	
	1970년대	홀터넥, 스트링 비키니(탕가), 광택소재 유행	50년대에는 허벅지 위까지 커팅된 수영복과 길고 헐렁한 수영복이 연령에 따라 다양화됨	60년대 후반에 비키니가 유입되어 70년대까지 유행	검정, 끈색 외에 화려한 색상과 무늬 등장, 라이크라, 나일론/라이크라, 나일론/폴리우레탄 소재 등장
	1980년대	G-스트링 등 대담한 디자인의 유행	색채와 무늬의 다양화, 가볍고 신축성 있는 스타일	화려한 색상과 무늬에 노출이 심한 대담한 디자인의 유행	인체공학적 원리를 고려해 피복면적 축소경향 심화
	1990년대	복고풍, 에콜로지, 에스닉 룩, 마이크로 비키니		편안한 실루엣의 원피스형과 기능성 위주의 전문선수용으로 양분	매끄러우면서 완전 방수 소재의 등장
	2000년 이후	다양한 크로스 코디가 가능, 아웃웨어와 유사한 소재나 디자인의 사용			전신수영복의 등장

세계적으로 채택되었으며, 대담하고 밝은 프린트가 유행하여 이국적 이미지를 제시했다.⁵⁾ 또한 1958년 듀퐁(Dupont)사에서는 라이크라(Lycra)를 발명했고, 나일론과 함께 워터벨벳(water-velvet)이라는 신소재를 사용한 현대적 형태의 수영모가 나타난다.

1960년대는 성 개방이나 여성해방운동 등 사회문화적 변혁의 시기를 맞아 수영복도 노출부위를 확대하고 신체 곡선을 강조하다가, 후반부에는 자연스런 모드로 나아간다. 비키니는 보이쉬한 쇼츠와 반두(bandeau)형 브라 형태로 6,70년대에 걸쳐 보편적으로 수용되었으며<그림 7>, 1964년 루디



<그림 6> 비키니를 입은 마릴린 몬로의 모습(1950)
<Splash: A History of Swimwear>



<그림 7> 비키니를 입은 트위기의 모습(1960년대)
<Decade of Beauty>

건릭(Rudi-Gernreich)은 톱리스(topless) 수영복을 발표해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그림 8>. 이 때는 나일론에서부터 코듀로이, 데이크론, 포폴린, 코튼 트릴, 아세테이트 등 소재가 다양해졌으며, 대담한 기하학적 무늬, 동물무늬와 더불어 밝은 색상의 파이핑과 바인딩이 조화를 이루었다.⁶⁾ 1970년대에는 프릴, 개더, 셔링, 파이핑 등 여러 기법이 수영복에 사용되었고, 홀터 넥은 가장 인기있



<그림 8> 루디 건릭의 톱리스 수영복(1964)
<<http://www.ssts.co.kr>>



<그림 9> 스트링 비키니(1974)
<In Vogue>

는 탑 형태였으며, 탕가(Tanga)라고 불리는 스트링(String) 비키니가 등장하여<그림 9> 수영복은 갈수록 성적 매력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이 때에는 밝은 색상에 면, 크레이프, 저어지, 광택소재가 많아졌으며 라이크라는 가장 고가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출경향은 갈수록 심화되면서 1980년대에는 대담한 디자인으로 가슴이 거의 드러날 정도의 과감한 노출과 함께 지 스트링(G-string) 비키니가 도입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마이크로 비키니가 등장하였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복고풍이 유행하면서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고, 에콜로지 룩, 에스닉 룩 등이 수영복에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거친 현대의 수영복은 미와 매력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신체의 자연스런 곡선을 표현함으로써 에로틱한 매력을 자아내며, 최근에는 다양한 크로스 코디네이션이 가능해 아웃웨어와 유사한 디자인도 등장하고 있다<그림 10>. 또한 기존의 수영복 개념을 파기한 소재의 도입으로 수영복 디자인이 스포츠 및 레저 웨어로의 전문화·다양화·개성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그림 10> 탕키니(2002)
<<http://www.dolpins.co.kr>>

한편, 남자 수영복은 19세기 초반 동판화에 따르면 펠트 모자를 쓰고 평상복 차림으로 수영을 했는데 이는 수영복이라기 보다는 '배싱 수트(bathing suit)'로 불렸다. 이것은 구간부 뿐 아니라 팔과 허

백지까지 덮는 무거운 모직원피스 형태로, 허리밴드는 물 속에서 흘러내려 일반화되지 못해 사실상, 19세기 중반까지 남자들은 정숙성에 저항하며 계속해서 벗은 채로 수영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이르자 드로어즈, 배싱 드레스, 선수용 드로어즈, 레귤레이션 코스튬, 슬립의 5가지 종류의 남자 수영복이 나타났다. 드로어즈(drawers)는 무릎길이 반바지형태로 가장 일반적인 남자 수영복이며, 배싱 드레스(bathing dress)는 짧은 소매와 허벅지 중간길이의 레깅스로 된 투피스나 원피스의 면 니트 의상이며<그림 2>, 선수용 드로어즈(athletes' drawers)는 육상선수과 서커스 단원들 사이에서 유행한 비키니 수영팬츠를 말한다. 그리고 레귤레이션 코스튬(regulation costume)은 어깨끈, 넥라인, 무릎에서 3인치 이내 길이의 바지로 이루어진 원피스형이며 슬립(slips)은 2장의 얇은 소재의 삼각형 천 양옆을 끈으로 묶는 형태의 타이트한 수영 팬츠로, 인체를 가장 많이 드러내었다.⁷⁾ 이 시기 남자 수영복에는 면 저어지가 주고 사용되었고, 대체로 파랑과 흰색, 혹은 빨강과 흰색의 가로줄 무늬가 있었다<그림 2>.

20세기에 들어 스포츠로서의 수영의 발달과 함께 남자 수영복은 슬리브리스에 전체길이가 짧아져 보다 기능적인 형태로 변화된다. 1920년대에는 셔츠와 트렁크가 분리된 투피스형이 원피스와 함께 유행했으며 팔경에는 넥라인과 암홀을 도려낸 수영복이 선보였다<그림 3>. 1930년대에 수영복 소매는 끈만 남게 되었으며 바지길이가 짧아지고 톱리스 수영복도 받아들여졌다. 이 때에는 나일론과 같은 신소재의 출현으로 몸에 밀착된 축소된 형태의 원피스가 나타난다. 1950년대에는 허벅지 위쪽까지 커팅된 형태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였으며, 동시에 보수적인 사람들을 위한 잼(Jam)이라 불리는 헐렁하고 긴 수영복도 나타났다. 이러한 남자 수영복은 스타일보다는 무늬와 색채에서 다양화를 추구했으며, 신축성 있는 섬유의 발달로 물에 저항력 있고 가벼우며 피부에 밀착되는 수영복의 생산을 가능케 했다.

우리나라에 수영복이 도입된 것은 8.15 이후 미국문화의 본격적인 유입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사회

적 불안정과 6.25로 인해 수영복의 제품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1961년 한국 샤크라인의 전신인 백화사가 '상어표 수영복'이란 브랜드로 국내에 수영복 시장을 개척하였고, 서해안 일대의 해수욕장이 개장되면서 수영복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이 때의 수영복은 100%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사용해 신축성이 전혀 없었고 노출은 극히 최소화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에 비키니가 들어오면서 1970년대까지 계속해서 유행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새로운 날염기술의 도입으로 화려한 색상과 무늬가 있는 수영복이 유행했는데 이 때부터 점차 노출이 많은 수영복이 보급되기 시작한다. 1990년대에는 수영복의 개념이 레저용으로서의 기능성과 더불어 에콜로지 룩이 나타나면서 편안한 실루엣의 원피스형과 기능성 위주의 전문선수용으로 양분되었다.⁸⁾

이상에서 남녀 수영복의 변천과정 및 우리나라 수영복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수영복 디자인은 수영의 목적과 함께 초기에는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행해지면서 일상복과 흡사한 디자인에서 출발하였고, 수영이 점차 스포츠로 인정되면서 활동에 편한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변모하다가, 현재에는 수영을 여가로 즐기면서 미적 측면을 강조한 레저용 수영복과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경기용 수영복으로 양분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경기용 수영복의 변천

수영이 스포츠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부터이며, 이로써 현대적인 수영복이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여자 경기용 수영복은 몸에 밀착되고 앞 목둘레선이 높은 레이서-백 수트(racer-back suit)로, 첨단 신소재로 제작되며 유선형 라인을 특징으로 한다<그림 12>. 그리고 남자 경기용 수영복은 1950년대 이후부터 스커트 형태가 사라지고 트렁크형도 축소되어 오늘날의 경기용 삼각 브리프(Brief)로 발전하였다.⁹⁾

경기용 수영복의 변천과정을 시대별 올림픽 경기와 소재의 기술적 발전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8년 제 4회 런던 올림픽의 남자 수영복과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여자 수영



<그림 11> 루디 건릭의
남녀 경기용 수영복(1970)
<Splash: A History of
Swimwear>



<그림 12> S2000을
사용한 여자 경기용
수영복(스피도) <The
Best in Swimwear
Design>

올림픽에서는 항력감소 연구의 원리를 적용한 목
부터 발목까지 전신을 덮는 전신 수영복이 사용되
기 시작했다.¹⁰⁾<그림 13>



<그림 13> 2002년 시드니 올림픽 전신수영복
<<http://www.finflier.com>>

선수들의 수영복을 통해 살펴 본 1900년대 초의 수
영복은, 슬리브리스에 허벅지 길이의 모직 저어지
반바지 원피스 형으로 매우 무겁고 얼굴과 팔을 제
외하고는 신체를 모두 덮는 형태로 기록경기로서
의 의의를 살릴 수 없었다. 1920년대에는 신체의
활동을 고려해 암홀과 네크라인이 더욱 깊게 파였
는데, 1920년 제 7회 앤트워프 올림픽 선수들의 수
영복은 단색 면 원피스로 색상은 남색이 전부였다.
1930년대에는 신체의 구조에 맞는 유선형으로 재
단된 경기용 수영복이 나타났으며, 실크와 면의 사
용은 1930년대와 1940년대 내내 계속된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1948년 런던 올림픽 경기부터 남자 수
영선수들은 트렁크만 입은 모습을 나타낸다. 1957
년에 스피도에서 개발한 최초의 나일론 경기용 수
영복이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기록탄생이 시작된다. 1970년대부터
경기용 수영복이 단색 외에 다양한 색상과 무늬의
화려한 것으로 변화하였으며<그림 11>, 1972년 뮌
헨 올림픽에 처음으로 라이크라가 등장하였고, 이
후 나일론/라이크라 혼방, 나일론/폴리우레탄 혼방
의 신축성 소재가 등장했다. 1980년대의 경기용 수
영복은 옆선이 더 높게 재단되어 피복면적을 축소
하려는 경향은 점차 증가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매끄러우면서 물을 전혀 흡수하지
않는 소재의 수영복이 나타났으며, 2000년 시드니

이처럼 BC 350년을 시초로 18세기부터 본격적
으로 출현한 수영복은 처음에는 일상복과 다름없
는 형태였으나 시대를 거듭해오면서 변화하여 성
적·사회적 지표를 제시하였고 심미적 차원에서
에로틱한 미감과 이상적인 인체미의 기준을 제시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능적 차원에서도 수
영복은 신소재의 개발과 인체 공학적 구성으로 경
기종목으로써의 수영의 목적에 부응하고 있다. 여
기에서 일반 수영복과 경기용 수영복은 각기 그 방
점을 달리하는데, 일반 수영복은 패션의 한 장르로
써 기능성 이외에도 특히 심미적이고 에로틱한 측
면의 부각과 개성 추구로 디자인의 다양화와 세분
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경기용 수영복은 경기라는
목적 상 경기력 향상을 위한 소재 및 인체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기능적 측면을 극대화하는 방
향으로 변화·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 경기용 수영복의 특성

본 절에서는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을 위해 규정
된 기본적인 요구사항과 이를 적용한 디자인의 특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규정상으로 경기용 수영복에는 규칙성, 쾌적성,
심미성, 상징성이 요구된다.

첫째, 규칙성은 경기복으로서 각 경기 종목의 규칙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야 함을 말한다.¹¹⁾ 국제수영연맹(FIN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 Amateur)의 규정 제 6조에 따르면, 모든 경기자의 의상은 도덕적인 정숙성을 갖추어야 하며 각 종목의 규칙에 적합해야 하고 비치지 않아야 하며 심판은 경기 시 선수가 규칙에 어긋난 복장을 하였을 때는 출전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¹²⁾ 국제적으로 공인된 수영경기 종목은 다음 4가지로 분류되나 일반적으로 수영 경기라 하면 경영을 일컬으며, 1974년 문교부에서 제시한 수영복 규정은 <표 2>와 같다.¹³⁾

측면에서의 충분한 고려와 함께 현대감각과 트렌드에 맞아야 함을 의미한다. 미적인 면을 고려한 경기복은 선수 자신에게는 심리적 쾌적감을 가지게 하고 관람자에게는 즐거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수영 종목 중 다이빙과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은 동작의 아름다움이 평가기준이 되기 때문에 미적인 효과를 갖춘 경기복은 이러한 경기종목에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상징성은 유니폼의 일종인 경기용 수영복이 넓은 의미에서 자기 민족사회 구성원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기 위한 상징성을 가져야 함을 말한다. 이는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가 시

<표 2> 경기용 수영복의 규칙

종목	수영복	액세서리
경영	남자: 수영팬츠 여자: 1. 상하 연결된 것. 등면 외에는 노출 不可 2. 다리는 가랑이가 7.5cm 하단은 수평 3. 목둘레는 목의 정면에서 12cm, 어깨둘레는 팔 밑 5cm	수영모 可 수경 可 물갈퀴장갑 不可 오리발 不可 지느러미 不可
다이빙	경영 수영복	
수구	수영 팬츠, 기름 不可	모자 필수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상하 연결된 것 규정 종목용은 후색	Nose clip 필수

* 모든 종목의 수영복은 투명하지 않고 불미스럽지 않을 것.

둘째, 쾌적성은 크게 생리적 쾌적성과 심리적 쾌적성으로 구분되는데, 생리적 쾌적성에는 의복 내기후, 운동기능성, 촉감을, 심리적 쾌적성에는 디자인 요소, 안전성, 내구성을 들 수 있다. 쾌적성을 위해 경기용 수영복은 물과 수영복과의 표면장력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축성이 좋고 표면이 매끄러운 소재를 사용해야 하고, 불필요한 장식과 디테일이 없어야 하며 흡수성이 적고 몸에 밀착되어 몸이 물에 젖어 무거워지지 않아야 하고 젖었을 때 비치는 색상과 소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팔, 다리의 움직임에 방해되지 않아야 하고 갑작스런 동작에 어깨끈이 흘러내리거나 소재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선명한 노출이나 강조를 배제한 것이어야 한다.¹⁴⁾

셋째, 심미성은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이 미적인

작된 이래 스포츠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징성은 국가적 정체성을 가시화 할 뿐만 아니라, 경기 시 선수로 하여금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배가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경기용 수영복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영복 디자인 요소에는 일반 의복의 스타일, 색채와 무늬, 소재와 더불어, 로고가 추가되며, 특히 인체공학적 패턴설계의 스타일과 유체저항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재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스타일상 경기용 수영복은 원피스 스타일에 속하며 기능성과 심미성이 모두 요구된다. 기능적 차원에서는 물과 수영복의 표면마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형태는 신체와의 밀착성 향상을 위해 신체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제작되며, 유체저항을 줄이기 위해 네크라인은 가능한 한 목 가까이 올리고, 견갑골 부근에서 물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을 깊이 파서 어깨 끈만 부착한다. 또한 발과 다리의 움직임을 좋게 하기 위해 다리의 옆선 부분을 깊이 파준다<그림 12>. 그리고 심미적 차원에서는 세로선 분할을 통해 신체를 길고 날씬하게 보이게 할 수 있으며, 대칭형 사선의 벌어진 각도에 따라 그 부위를 넓거나 좁아 보이게 할 수 있고, 다리부위의 옆선을 높게 함으로써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는 미적 효과도 낼 수도 있다.

둘째, 색채는 경기용 수영복의 형태가 단순하므로 수영복 디자인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영복에 흔히 사용되는 배색 유형은 채도가 높고 명도가 낮은 색채를 보색 대비시킨 것이며, 흰색과 빨간색 등은 물에 젖었을 때 비치기 쉬우므로 검정색과 남색 등의 색채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색채는 동적 움직임에 맞는 배색효과 및 물과 함께 이루어지는 주위환경과의 조화도 요구된다. 또한 수영복 무늬로 많이 이용되는 패턴에는 꽃무늬나 추상무늬가 가장 많으며, 동물무늬, 전통무늬도 이용되는데, 이러한 무늬의 활용은 안이 비치는 것을 보완해 주기도 한다. 경기용 수영복의 색상과 무늬는 이러한 심미적 차원 뿐 아니라, 참가선수의 소속국을 표시하는 색상이나 전통색상, 국기나 전통문양을 활용한 상징적 차원도 있다. 현재 올림픽 경기에 등장하는 경기용 수영복은 소속국가의 국기 색상을 활용하거나 국기의 문양을 배치하여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소재는 경기용 수영복의 기능성을 위해 가장 중요시되는 요소이다. 수영복 소재는 얇고 표면이 평활해서 물을 함유하기 어려워야 하며, 수영복과 인체 사이에 물이 침투하기 어렵고 들어왔을 경우에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경량성, 배수성, 신축성, 탄력성으로 집약되며, 여기에는 물, 해수, 염소 처리수, 세탁 및 일광 견뢰도가 요구된다. 경기용 수영복은 얇고 탄력이 있을수록 밀착감이 증진되고 착용감이 좋으므로 소재는 최소한 18% 이상의 스판덱스로 이루어져

야 하며, 여기에는 항염소성 성분이 함유되어야 한다.¹⁵⁾ 대부분의 수영복 소재로는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나일론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나일론 80%/폴리우레탄 20%의 혼용율을 이루고, 특히 경기용 수영복에는 마이크로 파이버를 이용한 소재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수영복 전문 신소재로 S2000, 아쿠아블레이드(Aquablade), 스트러쉬(Strush), 스트러쉬 제이(Strush J), 엑스-플랫(X-flat) 등이 있다.

다섯째, 로고는 경기용 수영복에 앞가슴이나 전면 전체, 양쪽 옆선, 다리부위 등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다양한 크기로 사용되고 있다.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에서의 로고는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좋은 광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심미적 차원의 디자인 요소로서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Ⅲ. 국내 수영복 업계의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 분석

1. 국내 수영복 업계 현황

국내 수영복 시장은 크게 종합 스포츠 브랜드와 수영복 전문 브랜드로 대별되며, 이는 다시 해외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로 양분되어 나타난다<표 3>.

우리나라 수영복 업체 중 대표적인 국내 브랜드로는 튜올림, 은나래, 짚신스포츠가 있으며, 라이선스 브랜드로는 아레나와 스피도에 불과했던 것이 1996년 파울로 구찌 런칭을 계기로 증가해 현재는 아레나, 레노마, 니나리찌, 닥스 등 라이선스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해 현재 약 90% 이상의 업체가 해외브랜드를 집중 전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유명브랜드 선호의식과 유통시장의 개방 등에 따라 갈수록 라이선스 브랜드와 직수입 브랜드가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국내 수영복 업체(2002년 기준)

구분		브랜드 명(제조업체)
종합 스포츠 브랜드	라이선스 브랜드(LB)	나이키, 라피도, 르까프, 리복, 아디다스, 아식스, 엘레쎌, 필라
	국내브랜드(DB)	액티브, 헤드, 프로스펙스
수영복 전문 브랜드	라이선스브랜드(LB)	아레나(동인스포츠), 스피도(한국팬트랜드), 레노마(우인실업), 니나리찌, 닥스(필드클럽), 워너브라더스마리끌레르(튜올립), 엘르(엑심), 미치코런던(짚신스포츠), 발렌시아가(은나라), 오닐(유림코리아), 피에르가르맹(타임스포츠), 로베르파디까메리노(태경실업), 인터크루(세유티네셔널), 비치퀸(에스앤에스), 엘파소(에스엠스포츠), 소피아마레(운지실업), 디아도라(S&F 코리아), 발맹(서령상사), 슬레진저(송원어패럴), 티어(대홍실리콘)
	국내브랜드(DB)	노스(노스피플모드), 짚신(짚신스포츠), 튜올립(튜올립), 오쫂(은나라), 파자마시스터즈(운지어패럴), 꼬모(튜올립), 울루(필드클럽), 윙(한국OGK), 스피트(대홍실리콘), 아르미스(나누리)

현재 국내 대표적인 경기용 수영복 브랜드에는 (주)동인스포츠의 아레나와 (주)한국팬트랜드의 스피도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레나가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아레나는 유체저항과 정류효과를 실현한 신소재 Strush 시리즈¹⁶⁾를 다양하게 전개해 경기용 수영복의 대중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전문선수용만 약 20 패턴 정도를 소량 완수입 하고, 대부분 라이선스로 전개해 소재만 수입하여 국내에서 디자인하고 있다. 스피도는 92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전문수영복으로, 하이테크 기능성 원단과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 및 인체공학적 패턴으로 올림픽 역사상 수영부문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산출하였다. 특수 신소재로 S2000<그림 12>과 유체저항과 신체 밀착감이 뛰어난 아쿠아블레이드¹⁷⁾ 등이 있다. 또한 최근 수영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전신수영복은 1999년 FINA의 승인을 얻어 경기복으로 사용된 것으로, 1998년 스피도가 처음 개발한 것이다.

2. 수영복 디자인 경향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수영복 업계의 전반적인 디자인 경향과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래의 국내 수영복 업체들의 디자인 경향을 삼성패션연구소가 1994년 이래로 현재까지 매년 7~8월에 걸쳐 조사한 소비자 수영복 착장 경향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패션성이 강한 제품영역의 확대와 투피스와 탱키니

(Tankini)¹⁸⁾의 다양화, 그리고 캐주얼 크로스 코디네이션 등 수영복의 영역을 뛰어 넘은 다양한 스타일의 등장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최근에는 수영복에 아웃웨어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국내수영복 시장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그림 10>. 삼성패션연구소에 따른 업계의 2002년 S/S 수영복 경향은 다음 <표 4>와 같다.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은, 특히 소재를 중심으로 한 운동기능성에 치중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경기용 수영복의 디자인 경향을 2002년 3월에 실시한 대표적인 수영복 전문 브랜드인 아레나 디자인 실장과의 인터뷰 및 아레나, 스피도, 나이키 등의 수영복 카탈로그를 통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스타일은 거의 전문 선수용의 고정 패턴을 따르며 등모양, 네크라인, 다리둘레에서 다소 변화를 주기도 한다. 그리고 전신수영복은 인체선에 따른 봉제선의 수를 늘려 신체와의 밀착감을 높이며, 무시집 봉제선 처리로 동작의 불편을 감소시킨다<그림 14>.

둘째, 색채는 시즌별 트렌드 및 업체별 기획방향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본물로 단색과 단색끼리의 색채배합이 일정비율로 주어지고, 무늬가 있는 경우에는 로고의 활용, 기하학적 무늬, 자연무늬 등이 활용된다. 현재 아레나에서는 만국기, 구름무늬, 당초무늬 등으로 한국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15>.

셋째, 소재는 스트리쉬나 아쿠아블레이드와 같

<표 4> 2002 S/S Swimwear Trend

성별	요소	특징
여성	스타일	- 과감하고 섹시한 느낌의 비키니와 캐주얼 크로스 코디가 가능한 탱키니 스타일의 양극화 - Sexy & Wild 이미지와 Romantic & Cute 이미지의 공존
	색상	- Blue Variation의 중요성 부각 - Bright Blue, Orange, Pink 등 캐주얼하며 컬러풀한 방향
	소재/무늬	- Denim, Jacquard, Knit 등 천연 소재 느낌을 주는 Fancy 직물 - 프린트와 디테일의 사용 증가 - 복고풍 Stripe와 Check Pattern의 지속
남성	스타일	- 과감한 Micro Mini 스타일과 캐주얼한 Trunk Pants의 두 가지 흐름
	색상	- Black을 중심으로 Black/White, Black/Grey, Black/Red의 Color 배색
	소재/무늬	- Trunk Pants를 중심으로 프린트물의 강세 - 삼각 브리프의 경우 로고를 응용한 스타일이 주류

은 특수 신소재도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경기용 수영복 소재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폴리우레탄 =75:25로 일반용보다 폴리우레탄의 비율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 수영복 생산업체들은 듀퐁社나 글로브(Globe)社 등의 라이크라나 텐셀과 같은 기능성 소재를 일본과 유럽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제 경기 시 경기용 수영복에 다양한 스타일과 화려한 색상이 등장한 것은 수년 전에 불과하다. 그 이전의 수영복은 거의 검정색이나 남색의 단색 수영복에 작은 국기를 가슴에 부착하여 소속국가를 표시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색상, 무늬, 혹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소속국을 상징하는 수영복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제 경기 시의 수영복은, 모두 원피스형에 색상은 통일시키지 않고 선수 개인의 취향을 허용하며 목자에만 태극기를 부착시키고 있다.

이상으로 국내 수영복 업계의 현황을 살펴 본 결과, 해외 브랜드에 비해 국내 수영복 브랜드들의 디자인상의 약세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신소재 개발 및 디자인과 품질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에서는 기능성 충족은 물론, 국가 상징성과 심미성 차원에 대한 고려가 시급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IV. 국내 수영선수들의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 선호경향 및 착용실태 비교분석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적 이미지의 남녀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로써, 국내 수영 선수들의 경기용 수영복 선호디자인, 착용 및 구매, 그리고 소재 및 관리의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및 일반인과의 비교를 통한 설문분석을 실시하였다.¹⁹⁾ 설문분석을 위한 예비조사로 수영선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설문 문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²⁰⁾ 조사대상은, 선수의 경우 한국체육대학교와 서울체육고등학교 수영 전공자들 중, 남자 49명, 여자 29명과, 일반인의 경우 종로 YMCA와 서초 YMCA에서 수영하는 일반 성인남녀로 남자 52명, 여자 75명으로 총 20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²¹⁾ 조사기간은 2002년 1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SPSS(version 10.1)가 이용되었다. 연구문제에 따른 성별 및 일반인과 선수별 경향 비교를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유의차 검증을 위해 χ^2 을 사용하였다. 또한 복수응답이 가능한 5개의 문항에 대해서는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결과 및 논의

1) 선호 디자인 경향

선호 디자인에 관한 문항은 디자인 요소별로 선호 스타일, 색상, 무늬, 로고, 액세서리의 측면에서 조사되었으며, 소재는 후에 별도로 분석 제시되었다. 첫째, 선호스타일은 여성의 경우 네크라인, 다리둘레, 등 모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선수여성의 경우 네크라인은 목 근처에서 약간 파인 R-Neck, 다리둘레는 High Leg, 등모양은 Key-hole Line형의 선수기본형(athletic style)²²⁾<그림 15>을 가장 선호하며 일반여성의 경우 네크라인은 보통 파임의 R-Neck, 다리둘레는 Normal Leg, 등모양은 U자 및 X자형의 일반 원피스 수영복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선수기본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수와 일반인이 유의한 차이의 보였다. 장진희(1998)도 여자선수들이 선수기본형 수영복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임병리(2000)는 일반여성도 실내수영장에서는 선수기본형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였다. 남성의 선호 스타일은 선수와 일반인 모두 삼각 수영복(Brief)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신수영복이 기록상승에 유리하다는 응답도 나왔으며 선호도는 수영 선수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표 5>. 이러한 수영복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적인 요인으로 선수는 남녀모두 기능성을 우선 시 한 반면, 일반인은 평범하고 무난한 디자인을 선호하고 다음으로 기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선호 스타일

▶ 여성

네크라인		HIGH NECK	R-NECK (목근처)	R-NECK (목~가슴)	V-NECK	CAMISOLE NECK	전체
선수	빈도(명)		27	2			27
	선수/일반의 %	.	92.6%	7.4%	.	.	100%
	네크라인의 %		51.0%	5.4%			27%
일반	빈도	2	24	35	8	4	73
	선수/일반의 %	2.7%	32.9%	47.9%	11%	5.5%	100%
	네크라인의 %	100%	49.0%	94.6%	100%	100%	73%
전체	빈도	2	49	37	8	4	100
	선수/일반의 %	2%	49%	37%	8%	4%	100%
	네크라인의 %	100%	100%	100%	100%	100%	100%

$\chi^2 = 28.276$ p-value = 0.000***

다리둘레		NORMAL LEG	HIGH LEG (CROTCH)	MEDIUM LENGTH (SHORT)	WRAP STYLE	전체
선수	빈도(명)	1	26			27
	선수/일반의 %	3.7%	96.3%			100%
	다리둘레의 %	2.4%	52%			28.7%
일반	빈도	41	24	1	1	67
	선수/일반의 %	61.2%	35.8%	1.5%	1.5%	100%
	다리둘레의 %	97.6%	48%	100%	100%	71.3%
전체	빈도	42	50	1	1	94
	선수/일반의 %	44.7%	53.2%	1.1%	1.1%	100%
	다리둘레의 %	100%	100%	100%	100%	100%

$\chi^2 = 28.274$ p-value = 0.000***

등모양		HALTER NECK형	U자형	X자형	H자형	KEY-HOLE LINE형	전체
선수	빈도(명)		2	1		24	27
	선수/일반의 %	.	7.4%	3.7%	.	88.9%	100%
	등모양의 %		4.8%	3.6%		100%	27.8%
일반	빈도	3	40	27			70
	선수/일반의 %	4.3%	57.1%	38.6%			100%
	등모양의 %	100%	95.2%	96.4%			72.2%
전체	빈도	3	42	28		24	97
	선수/일반의 %	3.1%	43.3%	28.9%		24.7%	100%
	등모양의 %	100%	100%	100%		100%	100%

$\chi^2 = 82.717$ p-value = 0.000***

▶ 남성

스타일		사각(SHORT)	삼각(BRIEF)	전신	전체
선수	빈도(명)	4	33	8	45
	선수/일반의 %	8.9%	73.3%	17.8%	100%
	스타일의 %	28.6%	42.9%	66.7%	43.7%
일반	빈도(명)	10	44	4	58
	선수/일반의 %	17.2%	75.9%	6.9%	100%
	스타일의 %	71.4%	57.1%	33.3%	56.3%
전체	빈도(명)	14	77	12	103
	선수/일반의 %	13.6%	74.8%	11.7%	100%
	스타일의 %	100%	100%	100%	100%

$\chi^2 = 3.898$ p-value = 0.142

둘째, 선호 색상계통은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다중응답분석을 한 결과, 선수 및 일반 남녀 모두 무채색계통을 가장 선호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선호색상에서는 무채색 중에서는 검정색을 가장 선호하였지만, 다음으로는 한색계통의 남색과 파란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선호색상배색은 선수와 일반 남녀 모두 유사색상의 무난한 배

색을 가장 선호하였다. 따라서 수영복 색상에 있어서는 선수와 일반인, 그리고 성별간 유의한 차이 없이 무채색 계통의 무난한 색상배색을 선호하는 함을 알 수 있다<표 7>. 이는 임병리(2000)와 이영아(1998)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며, 장진희(1998)는 경기용 수영복 색채는 흰색이나 붉은 계열보다는 청색계열을 선호하나 녹색계열은 선호하지 않으며, 채도가 높은 선명한 색채조화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표 6> 선호 색상계통

(단위: 명)

성별	색상	무채색 계통	한색계통	난색계통	여러 색상의 혼합	기타	전체
	선수	남성	36	10	1	4	2
여성		22	11	.	2	.	35
일반	남성	30	13	5	3	.	51
	여성	51	14	5	3	.	73
전체		139	48	11	12	2	212

<표 7> 선호색상배색

성별		배색		유사색상의 무난한 배색	강한 대비의 배색	전체		
		빈도(명)	성별의 %					
선수	남성	빈도(명)	31	67.4%	32.6%	46		
		배색의 %	25.8%				23.8%	25.1%
	여성	빈도(명)	15	57.7%	42.3%	26		
		배색의 %	12.5%				17.5%	14.2%
일반	남성	빈도(명)	28	65.1%	34.9%	43		
		배색의 %	23.3%				23.8%	23.5%
	여성	빈도(명)	46	67.6%	32.4%	68		
		배색의 %	38.3%				34.9%	37.2%
전체	빈도(명)		120	65.6%	34.4%	183		
	성별의 %		100%				100%	100%
	무늬의 %		100%				100%	100%

$\chi^2 = 0.916$ p-value = 0.822

셋째, 무늬에 있어서는 선수와 일반 남녀 모두 단색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단색끼리의 배색-기하학적 무늬-자연무늬-전통무늬 순으로 나타났다<표 8>. 또한 수영복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한국적 이미지의 문양에 대해서는 북

수용답을 허용한 결과, 태극문-부적합-동물문,운문-화문-도깨비문-글문-조각보문-십장생문 순으로 나타나 태극문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동물문 중에서는 특히 용문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표 9>. 심강희(1991)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수

<표 8> 선호 무늬

성별		무늬		단색끼리의 배색(Color Blocking)	자연무늬	기하학적 무늬	전통무늬	기타	전체						
		빈도(명)	성별의 %												
선수	남성	빈도(명)	29	12	2	5	1	.	49						
		성별의 %	59.2%							24.5%	4.1%	10.2%	2%	100%	
	여성	빈도(명)	11	8	1	6	.	1	27						
		성별의 %	40.7%							29.6%	3.7%	22.2%	3.7%	100%	
일반	남성	빈도(명)	21	13	5	7	1	.	47						
		성별의 %	44.7%							27.7%	10.6%	14.9%	2.1%	100%	
	여성	빈도(명)	30	18	5	13	2	.	68						
		성별의 %	44.1%							26.5%	7.4%	19.1%	2.9%	100%	
전체	빈도		91	51	13	31	4	1	191						
	성별의 %		47.6%							26.7%	6.8%	16.2%	2.1%	0.5%	100%
	무늬의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hi^2 = 13.026$ p-value = 0.600

영복의 절반이상이 기하학적 추상무늬이며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한 문양에는 당초문, 호문이 있고, 강렬하고 대담한 디자인에의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병리(2000)와 이영아(1998)의 연구에서는 일반여성들은 무늬 없는 단색이나 단색배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호하는 무늬의 크기는 선수는 남녀모두 중간크기를 선호하였고, 일반인은 남녀모두 작은 크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라오거나 꼭 끼일 경우 통증이나 어깨 결림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남성은 뒤 판의 중심 솔기선 바이어스 재단이 활동에 편하며 중심의 망사가 배수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랑이 부분이 너무 넓을 경우 활동에 지장을 주며, 허리끈이 풀리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전신수영복은 평형 시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색상에 있어서는 밝은 것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국제경기 시 눈에 잘 띄어 관중석에서 잘 보이기 때문이며, 단색이나 패턴물의 선호는 개인적 취향의 문제이나,

<표 9> 수영복에 적합한 한국적 이미지의 문양

(단위: 명)

무늬 성별		적합하 지 않다	태극 문	조각 보문	십장생 문	동물문	글문	도깨비 문	운문	화문	기타	전체
선수	남성	7	22	2	1	10	2	9	5	2	.	49
	여성	5	12	.	.	4	.	3	3	2	.	26
일반	남성	12	14	1	3	7	6	9	10	5	2	43
	여성	12	17	5	2	3	3	.	6	13	8	56
전체		36	65	8	6	24	11	21	24	22	10	174

넷째, 선호하는 수영복 로고는 선수와 일반인 모두 아래나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으며, 로고가 선호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정도는 많다고 보통이다가 유사하게 다수를 차지했으나 성별이나 선수와 일반인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임병리(2000)는 일반여성들은 전체적으로 다리둘레의 작은 로고를 선호하며 로고의 선호에는 브랜드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섯째, 수영 시 사용하는 액세서리로는 선수와 일반 남녀 모두 수영모와 물안경을 필수품으로 착용하고 있었으며, 수영모 디자인은 선수의 경우 남성은 단순한 디자인에, 여성은 무관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일반인의 경우 남성은 수영복과 색이나 디자인이 일관된 것에, 여성은 단순한 디자인에 대한 선호가 높아, 특히 여성의 경우 일반인이 선수에 비해 수영모 디자인도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수적으로 수영선수들과의 인터뷰 결과, 스타일에 있어서는 여성은 다리둘레가 높고 파인 것이 활동에 편하나 너무 파인 경우 사이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네크라인과 뒤 어깨부분이 너무

패턴물은 체형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착용 및 구매실태

착용 및 구매실태 관련 문항에서는 소유중인 수영복 개수와 착용기간, 구매빈도, 구매장소, 구매시 고려사항, 구매정보원, 그리고 선호상표 및 수입품과 국내품의 비교와 개선점 등이 평가되었다.²³⁾

첫째, 소유중인 수영복 개수는 선수는 남녀 모두 4벌 이상이 가장 많은 반면, 일반인은 약 2벌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수영복 1벌의 착용기간은 선수의 경우 남성은 3개월~6개월과 3개월 미만이 같은 빈도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3개월 미만이 다수를 차지한 반면, 일반인의 경우는 남녀 모두 6개월~1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수영빈도가 높은 선수는 수영복이 닳을 확률이 많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수영복이 일반인보다 많으며, 착용기간도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구매 빈도는 선수여성만 3개월에 1번으로 구입횟수가 가장 잦고, 그 외에는 모두 6개월에 1

번이 가장 많아 선수남성에 비해 여성이 보다 자주 수영복을 구매하고 있었으며, 일반인은 선수에 비해 남녀 모두 구매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매장소로는 선수는 남녀 모두 수영장 내 매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문 수영복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반면에 일반인은 남성의 경우 스포츠의류 전문점과 할인 매장이 같은 비율로 가장 많았는데, 이유는 전문점의 경우에는 품질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을 들었고, 할인매장은 저렴한 가격을 들었다. 여성은 백화점 구매가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유는 디자인, 제품의 다양성, 품질에 대한 신뢰, 구매 용이성, 그리고 백화점 행사 시 저렴한 가격의 구매가능성으로 나타났다.

넷째, 구매 시 고려사항에는 복수응답을 허용하였는데 선수의 경우 남성은 착용감이, 여성은 착용감과 디자인이 가장 높았고 기타 가격과 소재도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일반인은 남녀 모두 디자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선수는 디자인과 더불어 착용감을 우위에 두며, 일반인은 선수에 비해 디자인을 더 중시하고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경우 더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행성에 대한 고려는 선수와 일반인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나 경기용 및 일반 실내용 수영복은 유행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진희(1998)의 연구에서는 여자선수가 경기용 수영복을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소재를 가장 중요 부문으로 꼽고 있다.

다섯째, 구매 정보원은 선수와 일반 남녀 모두 친구나 동료의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해 구전에 의한 수영복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선호하는 수영복 상표로는 아레나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이유는 좋은 착용감, 품질, 내구성, 디자인, 소재, 상표인지도, 구매 용이성 등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수입품과 국내품의 선호도 비교에서는 선수와 일반 남녀 모두 수입품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좋은 품질과 기능성, 내구성, 우수한

착용감과 맞춤새, 디자인 등을 들고 있다. 국내품의 개선점은 선수의 경우 남녀 모두 소재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반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디자인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수영선수들과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아레나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었으며, 국내품의 문제점으로 뻣뻣한 소재, 세련되지 못한 색상, 로고마크도 자주 떨어지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3) 소재 및 관리

수영복 소재에 있어서는 특정 소재에 대한 선호도 조사보다는 내구성, 촉감 및 착용감, 관리의 측면에서 평가되었다.

첫째, 내구성에 있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수영복이 닳아서 헤어진다고 응답하였고, 주로 엉덩이 부위가 가장 많이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취화 기간은 선수의 경우 3-4개월, 일반인의 경우 5개월-1년으로 나타났다.

둘째, 촉감 및 착용감에서 현재 사용 중인 수영복의 촉감은 매끄러움, 신축성, 탄력, 유연성, 두께감, 부드러움, 무게감의 총 7항목에 대해 보통 정도의 평가를 나타내고 있으나, 선수의 경우에는 신축성, 탄력의 항목에서 좋지 못한 평가가 나타났다. 그리고, 착용감의 경우 늘어서고 비침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수영복으로 인한 피부 문제 발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영복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여성의 경우 어깨끈, 남성의 경우 허리끈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관리 면에서는 탈색이나 얼룩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과 있다는 응답이 3:2정도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세탁시간 및 세탁 방법은 대부분 수영 직후, 물만 사용하여 손 세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수영복 소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취화되어 손상되는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늘어짐과 비침의 문제도 나타나 수영복 소재상 내구성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영복 소재가 갖추어야 할 성능은 내염소성, 신축성, 염색견뢰도, 통수성, 경량성 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수영선수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소재 상 고려점으로 안이 비치는 문제에 대한 보완과 함께 안

비칠 경우 원단이 두꺼워져서 무거워지는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함을 지적하였으며 작은 사이즈를 입는 원인으로 늘어지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V.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수영 선수들의 선호에 부응하고, 업계의 시장활성화에 일조하며 국가 상징성을 시각화할 수 있는 한국적 이미지를 적용한 남녀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고에서는 디자인 개발의 전 단계로써 수영복의 변천과정과 경기용 수영복의 특성 등의 전반적인 이론적 연구와 국내 수영복 업계 현황 파악, 그리고 국내수영 선수들의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 선호경향 및 착용 실태에 대한 실증적 연구까지만 분석, 기술하였다.

수영복은 기원전 350년을 시초로 하여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일상복과 다름없는 형태였다가 시대를 거듭해오면서 점차 인체를 드러내고 다양한 디자인상의 변화를 거쳐왔다. 경기용 수영복은 일반 수영복에 비해 특히 인체와의 밀착성, 유체저항성, 동작의 편의성 등의 운동기능성이 중요시되며, 규정상 규칙성, 쾌적성, 심미성, 상징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고려한 디자인 설계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국내 수영복 업계 현황은 해외 브랜드가 수영복 시장을 거의 선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내 브랜드의 신소재 개발 및 디자인과 품질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 경기 시 경기용 수영복에서의 국가 상징성에 대한 요구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 수영 선수들의 경기용 수영복 선호디자인, 착용 및 구매, 그리고 소재 및 관리의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성별 및 일반인과의 비교를 통한 설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호 디자인 경향에 있어서는 디자인 요소별로 선호 스타일, 색상, 무늬, 로고, 액세서리의 측면에서 조사되었다. 선수들의 선호스타일은 여성의 경우 Key-hole Line형 원피스 스타일을, 남성은

삼각 수영복(Brief)로 나타났고, 선호색상은 검정과 파랑, 남색 중심의 무채색계열과 한색계열을 이용한 유사색상의 무난한 배색에, 무늬는 단색이나 단색배색으로 무늬가 없거나 있을 경우에는 중간크기를 선호하였고, 한국적 이미지를 적용할 경우 태극문을 중심으로 용문, 운문 등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로고의 디자인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큰 편이며, 액세서리로는 수영모와 물안경을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수는 일반인에 비해 남녀 모두 피복면적을 최소화한 스타일, 단색계열이나 무늬를 줄인 무채색 계열의 무난한 색상을 선호하며, 일반인과 유사하게 로고 디자인 중시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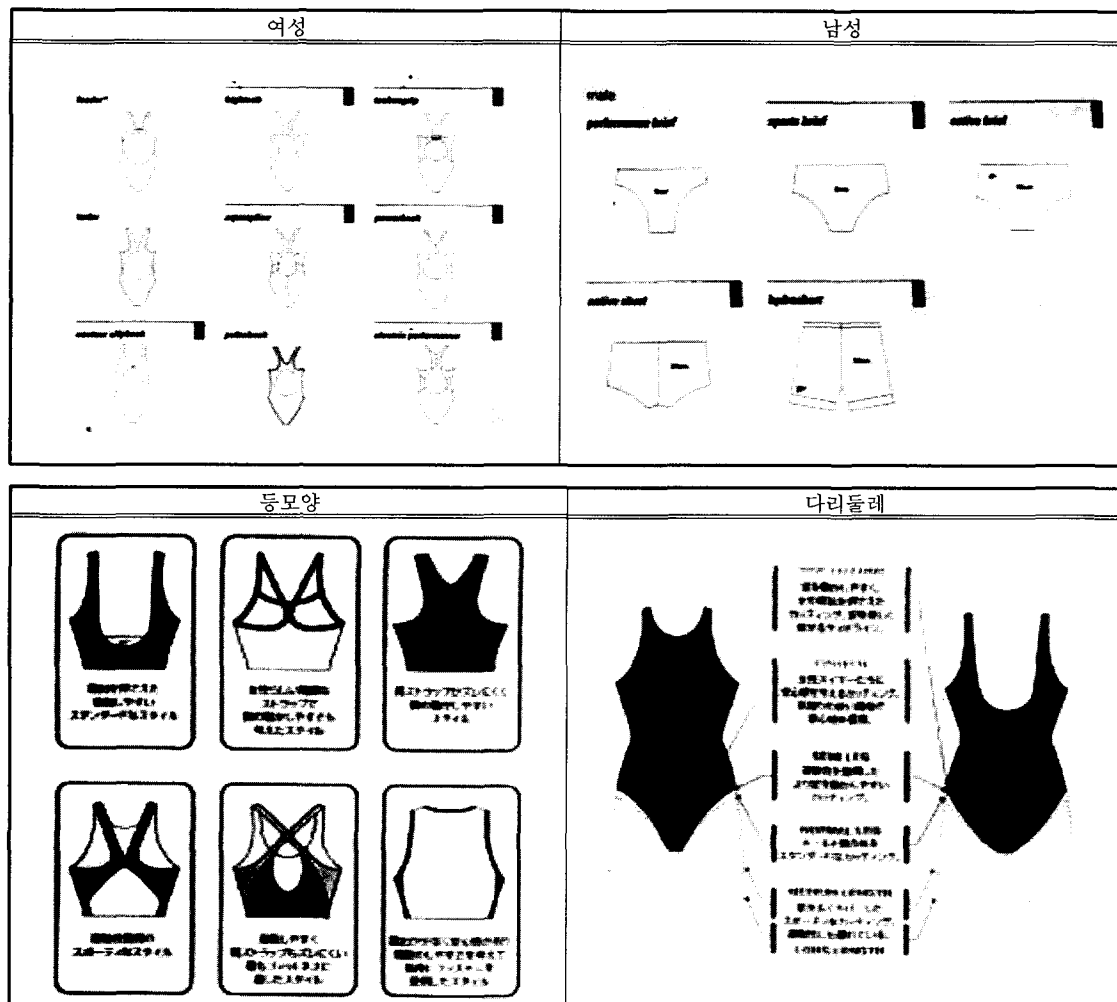
둘째, 착용 및 구매실태에서는 소유중인 수영복 개수와 착용기간, 구매빈도, 구매장소, 구매 시 고려사항, 구매정보원, 그리고 선호 브랜드 및 수입품과 국내품의 비교와 개선점 등이 평가되었다. 선수들은 대체로 남녀 모두 약 4벌 이상의 수영복을 소유하고 있으며, 착용기간은 여성은 3개월 미만, 남성은 3개월 미만과 3개월~6개월이고, 구매빈도는 여성은 3개월에 1번 남성은 6개월에 1번으로, 일반인에 비해 소유 수영복 개수가 많고 착용기간을 더 짧으며 구매빈도는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구매장소는 수영장 내 매장으로 친구나 동료에 의한 구전 구매가 많으며, 구매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남자는 착용감을, 여자는 착용감과 디자인을 1순위로 두었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상표로는 우수한 품질을 이유로 아레나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국내품보다 수입품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했는데, 그 이유로는 좋은 품질, 기능성, 내구성, 우수한 착용감과 맞음새, 디자인 등을 들었으며, 국내품의 문제점으로는, 소재-디자인 및 착용감 순으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체로 착용기간이 짧고 구매빈도도 잦은 경기용 수영복은 일반용에 비해 보다 내구성이 좋고 구매가 용이하며, 특히 소재를 비롯한 착용감과 디자인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소재 및 관리의 측면에서 경기용 수영복 소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취화되어 손상되는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늘어짐과 비침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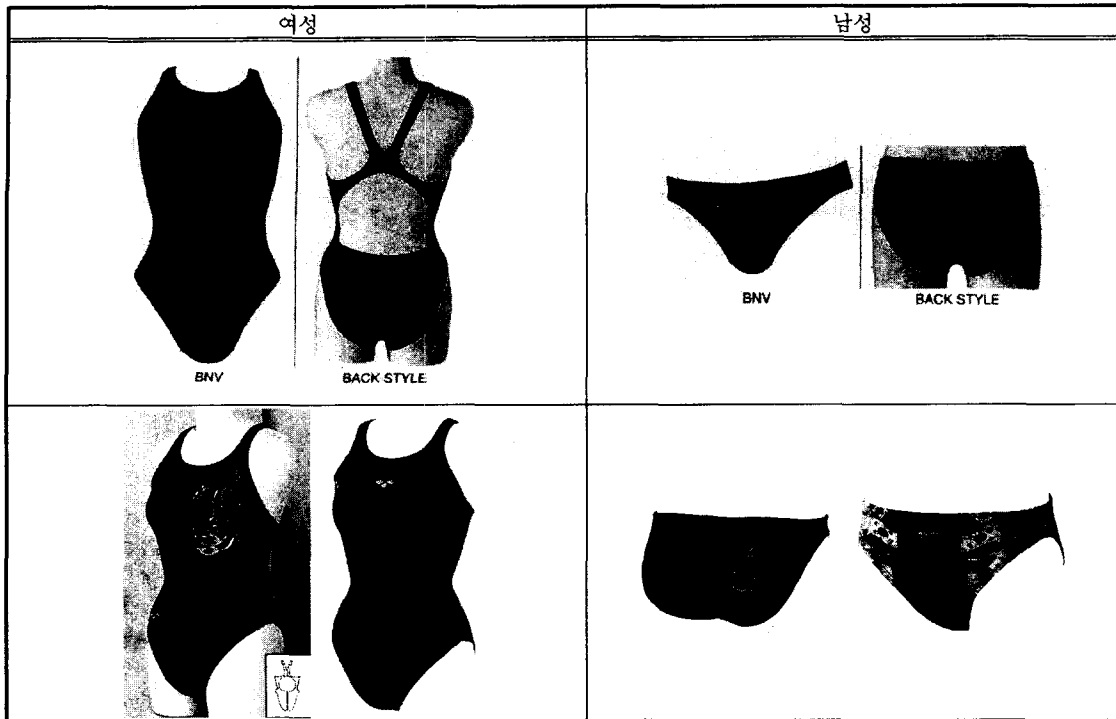
제도 나타나 수영복 소재에 있어 내구성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내염소성, 신축성, 염색견뢰도, 통수성, 경량성 등을 고려한 수영복 소재개발이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일반인과 차별화 된 수영선수들의 선호 디자인 경향을 반영하고, 소재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을 통해 보다 우수한 착용감, 디자인, 내구성을 보유하여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적합한 한국적 이미지를 통해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본 고에서 제시된 설문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능성 향상을 위한 상이한 수영복 스타일을 착의 실험과 심미성과 상징성 차원에서 색채와 무늬를 중심으로 한국적 이미지의 디자인 원천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디자인에 필요한 최종적인 요소를 추출한 후,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한국적 이미지의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에 대한 접근과 더불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그림 14> 국내외 수영복 업체의 경기용 수영복 스타일(상: 스피도, 하: 나이키)
<2001년 Speedo, Nike 카탈로그>



<그림 15> 아레나(ARENA)의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의 예<<http://www.arena.co.kr>>
(상: 일반적인 디자인, 하: 한국적 이미지의 디자인)

참고문헌

- 1) 이에 대한 근거는 George III세 때 1789년 Fanny Burney의 일기를 통해 드러난다. 이 일기에 따르면, 거들과 브래지어로 된 플란넬 드레스와 보넷이 물놀이를 위한 복장이었다(Probert, Christina(1981). *Swimwear in vogue since 1919*. London: Thames and Hudson, p.7).
- 2) 안영주(1983). 수영복의 변천과정과 육체노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8~11.
- 3) Probert, Christina. *op. cit.*, pp.8~17.
- 4) 1935년 Vogue에 프랑스의 Louis Reard가 비키니라는 이름의 짧은 홀터넥 투피스를 선보였는데, 이는 당시 비키니 섬에서 폭발한 원자폭탄과 유사하게 수영복에서의 폭탄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 5) *ibid.*, pp.40~57.
- 6) *ibid.*, pp.68~69.
- 7) Craik, Jennifer(1994). *The Face of Fashion*. London and New York. pp.138~139.
- 8) 이영아(1998). 성인여성의 수영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5.
- 9) McKenzie, Joy(1998). *The best in swimwear design*. London: B.T. Batsford. Ltd, pp.6~8.
- 10) 최혜선, 박진희, 이경미, 도윤희, 김은경(2001). 액티브 스포츠웨어 설계(Active Sportswear Design). 서울: 수학사, pp.223-225.
- 11) 여기서 수영 경기종목에는 경영, 다이빙, 수구,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 포함된다. 경영은 일정한 거리를 정해진 수영법으로 수영하여 그 소요시간을 다투는 경기이며, 자유형, 평형, 배영, 접영, 개인혼영, 혼계영으로 분류된다. 다이빙은 스프링보드에서 공중으로 뛰어 수면으로 빠지는 동안의 아름다움과 경쾌함을 겨루는 스포츠로 펜시 다이빙으로 불린다. 수구는 7명씩 2팀이 대결하여 규정된 경기장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상대편 골대에 볼을 넣고 그 득점 차로 승부를 결정하는 경기이며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은 유럽에서는 아티스틱 스위밍으로 불려지는 수중 매스게임을 말한다.
- 12) FINA Office(1997), p.94. 장진희(1998). 경기용 여

- 자 수영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감성과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14-15에서 재인용.
- 13) 유영선(1984). 경기용 수영복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24-25.
- 14) 장진희, 앞의 책, pp.17-18.
- 15) 일반적으로 레저용 수영복이 폴리우레탄 17%, 나일론 8%인데 비해, 경기용 수영복은 폴리우레탄 26%, 나일론 74%로 폴리우레탄 함량이 높다. 또한 중량은 레저용이 60인치 폭에 340g/m~350g/m인데 비해, 경기용은 60인치 폭에 250g/m~260g/m로 원단의 중량을 낮추고 있다.
- 16) Strush는 일본 Toray사가 개발한 초극세 폴리에스테르사로, 탁월한 신축성과 밀착감, 표면요철을 줄여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였으며 탈색이 적고 실크와 같은 촉감과 광택이 좋다. Strush J는 수영복 소재 자체에 작은 골을 만들어 길이 방향으로 흐르는 골의 요철이 물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시킨 신소재로 장거리 경기에 적합한 소재이다(ARENA 2002 S/S Catalogue).
- 17) Speedo만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복 전문 소재로, 가볍고 신체와의 밀착성이 뛰어나며 프레스 가공법에 따라 광택에 차이가 있다. S2000의 원단에 골을 첨가한 것이 Aquablade이다.
- 18) 탱키니(Tankini)는 비키니와 원피스의 장단점을 보강한 아이টে็ม으로, 스포츠 브라 형식의 탑과 짧은 긴 하의류의 수영복 제품을 일컫는다.
- 19) 본 설문분석은 한국과학기술재단에서 지원한 스포츠웨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영복 프로젝트 과정과 함께 진행된 것으로,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통계적 변인, 대회경력 및 스포츠 상해, 수영습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일반사항, 선호디자인 및 요구사항, 착용 및 구매 관련사항, 그리고 내구성, 촉감, 착용감, 관리, 기타로 이루어진 소재 및 관리 관련사항의 총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연구의 특성상 성별과 선수/일반인 간의 비교분석만으로 제한하여 인구통계적 변인 및 수영습관별 통계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 예비조사로 실시된 인터뷰의 대상자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수영전공자 3명(여자2, 남자 1명)으로 모두 국제대회에 참가경력이 있는 선수들이며, 시기는 2001년 10월29일 하루에 걸쳐 실시되었다.
- 21) 일반인의 수영복 선호경향은 선수와의 비교를 위해 제시된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선수들의 수영환경과 유사한 실내수영장으로 제한하였으며, 스타일도 원피스 수영복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2) 기본 원피스 스타일에서 변형된 수영복으로 일반적으로 경기용 수영복으로 불리며 기본 원피스형보다 착용감이 좋다. 뒤 라인에 따라 선수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되는데, 앞 라인의 절개선이 뒤 라인까지 이
- 어지는 디자인이 대부분이다(임병리(2000). 성인여성의 수영복 제작을 위한 수영복 디자인 선호조사 및 의복태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2). 본 논문은 디자인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착용 및 구매실태와 소재 및 관리사항은 관련 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